

시비왕이 비둘기 대신 살 베었으나 곧 회복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40)

시비왕이 부처님이 된 사연

과거에 시비라는 왕이 있었다. 왕은 크게 정진하여 일체 중생 보기를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듯 했다. 세간에는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았으므로, 석제환인이 죽으려 할 때에 생각하기를 '어디에 온갖 지혜 지닌 사람이 계시는 것일까?' 하고 곳곳으로 다니며 물어보았으나 의심을 품을 수가 없었으므로 근심 걱정하며 앉아 있자, 뛰어난 변화사(變化師)인 비수갈마천이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하십니까?"

석제환인이 대답했다.

"나는 온갖 지혜 지닌 사람을 구하고 있으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한다."

비수갈마는 말했다.

"보살로서 보시, 지계, 선정, 지혜를 지닌 이가 계시는데, 오래지 않아서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석이 물었다.

"누구신가?"

비수갈마가 대답했다.

"바로 우시나종의 시비왕이십니다."

석제환인은 비수갈마에게 말했다.

"이제 그를 시험해 봐야겠구나."

비수갈마는 몸을 변화시켜 눈이 붉고 발이 붉은 한 마리의 비둘기가 되었고, 석제환인은 몸을 변화시켜 매가 되었다.

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로다. 내가 어떻게 하나를 죽여 다른 하나에게 주겠느냐?"

생각이 이미 정해지자 계승을 물었다.

"나의 이 육신은 / 항상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속해 있어 / 오래지 않아 냄새가 나고 문드러질 것이니 / 구하는 이에게 주어야 하리."

이와 같이 생각한 뒤에 사람을 불러 칼을 가져다 스스로 다리의 살을 베어 매에게 주자 매는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 비록 더운 살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나 마땅히 이처럼 따져보면 살의 가벼움과 무거움

지혜가 없는 이는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자, 그때에 천지는 여섯 가지로 진동했고, 큰 바다에는 물결이 일었으며, 마른 나무에서는 꽃이 피었고, 하늘에서는 향의 비가 내리면서 좋은 꽃을 흠뿌렸으며, 천녀들은 노래고 찬탄했다.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석은 왕에게 말했다.

"당신은 살을 베어서 몹시 괴로울 터인데, 괴로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까?"

시비왕이 말했다.



삽화 · 강병호

매가 급히 날아 비둘기를 쫓자 비둘기는 곧장 가서 왕의 겨드랑이 아래로 들어가 온 몸을 벌벌 떨면서 눈을 굴리고 죽어가는 소리를 냈다. 이때의 많은 사람들은 함께 말했다.

"이 왕은 모든 것에 인자하므로 마땅히 보호할 것이니, 이런 조그마한 비둘기라도 마치 집에 들어오는 사람처럼 잘 돌봐줄 것이다."

그때 매는 가까운 나무 위에 있으면서 시비왕에게 말했다.

"저의 비둘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은 저의 먹이입니다."

그러자 시비왕이 매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비둘기를 받았지, 네가 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처음 뜻을 내었을 적에 온갖 중생들을 받아들여서 모두 제도하려 했다."

매는 말했다.

"왕께서는 온갖 중생들을 제도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온갖 중생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저만 가없이 여기저기 않고 저의 먹이만을 빼앗으십니까?"

왕이 대답했다.

"너는 무슨 먹이를 구하느냐? 나는 서원하기를 '그 어느 중생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이면 반드시 그를 구호하겠다'고 했다. 너는 어떠한 먹이를 구하느냐? 역시 너에게 주겠다."

매가 말했다.

"저는 막 죽은 더운 살코기를 구합니다."

왕은 생각했다.

"이러한 것은 얻기 어려워서 스스로 살생한 것

을 비둘기와 똑같이 하여야 합니다."

왕이 말했다.

"저울을 가져오너라. 살을 비둘기와 대등하게 하리라."

왕이 살을 다 베어 내자 비둘기와 비로소 똑같이 되었으므로, 마음속으로 책망했다.

"나는 스스로 견고하여야 하니, 미혹되거나 번민하지 말자. 일체 중생이 큰 괴로움의 바다에 빠졌으므로 맹세코 그를 제도하려 한다. 무엇 때문에 게을리 하고 번민하겠는가? 이 괴로움이야말로 아주 적은 것이요, 지옥의 괴로움은 많은 것이다. 내가 지혜와 정진과 지혜와 선정이 있는데도 이런 괴로움을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지옥 안의 사람으로서

"나의 마음은 기쁨 뿐이요, 괴로워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제석이 말했다.

"누가 당신을 믿겠소?"

이때 왕은 맹세했다.

"만약 제가 살을 베고 피가 흐르면서 성내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으며, 일심으로 번민하지 않으면서 부처되기를 구하는 것이라면, 제 몸이 이내 본래대로 회복되도록 하소서."

말을 마치고, 즉시 본래대로 되었다. <<대지도론>> 제4권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④



생명의 소중함에 경·중 없어

병아리 구족(具足)이

2013년 9월 26일 오전 10시 15분, 집에서 기르던 병아리(구족)가 죽었다. 멀리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아들 가족이 보내준 병아리다. 병아리는 돈을 주고 사온 것이 아니라 아들 내외가 기르던 어미 닭이 낳은 알에서 나온 병아리였다. 온 가족들이 새 생명을 신기하게 여기며 축하했던 기억이 났다.

처음 세 개의 알에서 세 마리의 병아리가 성공적으로 태어났지만 날이 지나면서 두 마리의 병아리가 죽고 홀로 남은 한 마리는 지난 추석에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다. 이유는 우리 집에 마당이 있기 때문이었다.

며칠 전이었다. 찻상 아래 병아리 변이 있어 닦으려고 찻상을 밀었는데 그 속에 병아리가 있었던 것을 몰랐다. 그만 병아리가 다리를 다쳤다. 내가 "미안해"라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 안고 달래며 옮기기도 했다. 그래도 밥도 잘 먹고 절룩이면서도 잘 걸어도 다녔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지꾸만 누워서 눈을 감고 즐었다. 병아리한테 정말 미안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던 날, 병아리를 들고 온 손자가 병아리와 헤어지면서 슬피 울었던 기억이 났다. 잘 키워 실날에 오면 또 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손자한테 면목이 없다.

엔 경중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눈물을 겨우 삼키며 집으로 와서는 큰 소리로 울고 말았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 병아리는 행운인 거야 병아리가 되지 않았다면 누구로부터 계란 후라이로 먹고 말았을 테고 또 잘 자란다 한들 결국엔 누군가의 식탁에 올려졌을 거야. 그런 운명이 그래도 좋은 인연 만나 마지막 길에 받아심경도 듣고 진심어린 축원도 들을 수 있어 축복만 거지."라고 말했다.

그 날 하루종일 내 맘엔 온통 "빠야빠야" 병아리 소리만 들려왔다. 이별은 안타까운 것이었다. 역시 이별에도 경중은 따로 없었다. 아무리 짐작을 끊으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임을 새삼 느낀 하루였다. 슬픈 날이었다.

실날에 올 손자 얼굴이 어른거렸다.

말면서도 당황 뵈 했던 보이스피싱

남의 얘기라면 알았던 '보이스피싱' 이 내게도 일어났다. 며칠 전이었다. 아침에 전화가 걸려왔다. 내 이름을 이미 알고 본인 확인을 했다. 본인 확인에 응하고 나니 "여기는 농협 서울 여의도 농협 지점인데 방금 정수만이란 사람이 나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가져와 돈을 찾으려 왔는데 조금은 의심스러워 확인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차례로 물어면서 확인을 했다.

"요즘 불법채용자가 이렇게 활개를 치고 사기 행각을 하니 은행으로서도 하루에 몇 번씩 이런 확인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 지금 돈을 인출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니 그 사람을 잡으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순찰 경찰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이번엔 여의도 경찰 수사계 형사라는 사람이 전화하여 조금 전과 같이 나의 모든 신상을 다시 물고는 너무 빈번한 일이니 수사에 도움을 달라며 신고 절차를 밟는다고 했다. 나는 꼬박 꼬박 대답을 하면서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받아심경' 들고 떠난 병아리 부처님 법대로 사는 세상 오길...

병아리가 죽기 전날 나는 범어사 쪽으로 불 일이 있었는데, 병아리를 태우고 갔다. 병아리가 위태로워 보여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볼 수 있을 때 세상 구경이라도 맘껏 하게 해주고 싶었다. 병아리 일생이라는 게 짧은 것이어서 이름을 구족(具足)이로 지었다. 다음 생엔 꼭 사람이 되어 구족신통의 인물이 되라는 뜻에서 지었던 이름이다. 너무 잠만 자기 공진당이라도 먹이면 원기를 찾을까 싶어 입으로 꼭 꼭 씹어 먹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영 몸이 처져 아무래도 죽을 것만 같아 부처님 전에 이별을 고하고 다음 생엔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를 축원하며 고통 없는 주검을 기원했다.

나는 미리 오전 차를 담았던 오토누우 통으로 관을 삼아 그 속에 향 몇 개를 담고, 가다가 먹을 것도 담고 화려하게 핀 난(蘭)꽃 한 송이도 담았다. 그리고 녹차를 우려 병에 담아 절이 있는 뒷산으로 올라가 묻어주었다. 그리고 차 한 잔 올리고 받아심경 한 편 읽으며 왕생극락을 빌었다. 어린 생명이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떠난 것이 가엾고 마음이 아팠다. 말 못하는 작은 병아리였지만 분명 한 세상에 서로 함께 숨 쉬며 산 생명이었고, 인연이었다. 그 살을, 인연을 죽음으로 땅에 묻으니 죽음에 대한 슬픔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통장이 몇 개인지, 어느 은행과의 거래하는지 등을 물은 후, 지금 지급정지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니 가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다. 나는 하마터면 나의 모든 계좌번호를 불러 줄 뻔 했는데, 그때 갑자기 수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직접 은행에 나가서 각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걸려왔던 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결번이었다. 남들이 그런 일에 속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바보들 같이 왜 속을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막상 이렇게 내가 당해보니 조금은 이해가 갔다. 하마터면 큰 일 날 뻔했다.

점점 더 주변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부처님의 바른 계율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본다.

부산 언꽃모임회장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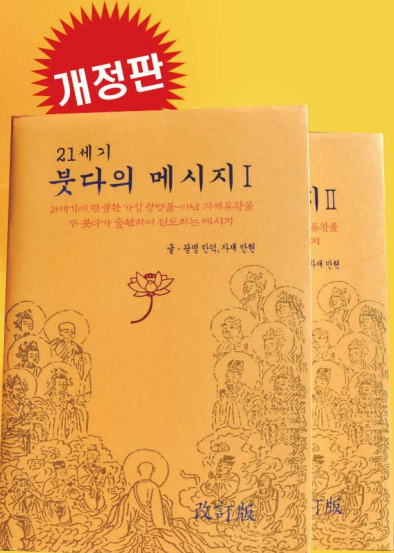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추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해와 차이를 정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던 일률성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가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미치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미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참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교를 이론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